

# 시진핑 시대의 종교 지형을 아래로부터 이해하기: 종교중국화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유원지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의 종교 지형의 변화 및 복잡함을 아래로부터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독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시진핑 정부는 종교중국화 아젠다를 중심으로 강경한 종교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종교중국화를 일관되고 고정된 의미를 지닌 국가 주도 정책 담론이나 제도로 환원시키는 대신 매우 복잡하고 진행 중인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종교 행위자들이 당-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종교중국화 정책 및 중국화 담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본다. 현재 많은 중국 교회들은 이전보다 억압적으로 변해가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현실적인 생존의 방식을 찾기 위해 당-국가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교회의 탈정치성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 관료들과 판시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교회 조직을 재정비하며, 해외 단체들과의 교섭을 중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실천들은 지역 교회들이 다양한 사회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하는 한편, 저항이나 복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종교적 행위자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주제어 중국, 기독교, 시진핑, 억압, 중국화, 종교적 행위자성

## I. 들어가며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사회 전반에서 감시와 통제의 수위가 높아진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진핑 체제하에서 생겨난 변화가 종교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종교중국화 아젠다로 인해 많은 종교 집단들은 이전보다 더 큰 정치적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해외 언론 보도나 인권 관련 기관의 보고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 중국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와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한 종교 조직과 신자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다. 시진핑 정부는 비공식적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을 강력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자유주의적 성향의 지식인과 인권 운동가, 해외 단체와 연루된 종교 집단이 주된 표적이 되어 왔다.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 집회 장소 폐쇄, 종교 건물의 철거, 종교 지도자들의 구금 등의 억압적 조치가 발동되었으며, 이는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sup>1</sup>

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의 종교 지형의 변화 및 복잡함을 아래로부터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중국 기독교<sup>2</sup>에 관한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중국 사회에서는 종교 행위와 표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탄압적으로 보이는 정책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억압과 박해의 내러티브는 중국 사회의 정치와 종교 사이에 형성된 복잡한 관계와 그 미묘한 뉘앙스를 충분히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단순화하거나 일반화하는 대신,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매우 다양한 사회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위자성을 실천하고 있음을 기술하고자 한다.

중국의 국가와 교회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지배와 저항의 담론을 넘어서서 권위주의적 정부와 종교 집단 간에 보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주목한다(Goossaert and Palmer, 2011; Koesel, 2014; Vala, 2017; Reny, 2018). 억압하는 국가와 박해받는 혹은 저항하는 교회를 대비시키는 정형화된 패러다임은 종교 단체와 신자들을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희생자로 전락시키거나 혹은 이들에게 자유의 투사라는 낭만화된 이미지를 덧씌운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목표와 공식 정책 혹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건들에서 확인하기 힘든 것은, 교회와 신자들이 지역 차원에서 용인 가능한 종교적 실천의 범위를 고민

#### 1

이들테면 다음을 참조하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23년 연례보고서(<https://www.uscirf.gov/sites/default/files/2023-05/China.pdf>);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월드리포트 2024(<https://www.hrw.org/world-report/2024/country-chapters/china>); "Inside China's unofficial churches faith defies persecution,"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1월 6일자(<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2180873/inside-chinas-unofficial-churches-faith-defies-persecution>).

<sup>2</sup>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기독교라는 용어는 개신교를 의미하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관행을 따라 기독교를 개신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제한한다.

하면서 신앙과 정부의 지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진핑 시대의 종교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기독교 집단 중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올바르게’ 읽어냄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가는 이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조직의 안위를 위해 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종교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도 있다. 본 연구는 “억압은 일방통행이 아니며,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Lee and O’Brien, 2021: 903)을 찾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중국 교회들은 적극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한적인 정치적 환경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표면적으로 단일해 보이는 정책 담론과 정책 시행에 굴절과 변형을 만들어 낸다.

본 연구는 현대 중국 사회의 핵심 종교적 아젠다로서 종교중국화에 주목한다. 많은 경우 종교중국화에 관한 논의, 특히 국내 연구자들의 논의는 종교중국화를 권위주의적 정부가 추진하는 강경한 종교 정책으로 이해하며, 종종 국가 주도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종교중국화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된다(김경아·강경구, 2017; 박만준, 2018/2019; 이우선, 2020).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종교법제화,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종교문화의 형성, 강압적 통제를 수반하는 정책 시행이 개혁개방 이후 부흥을 맞이한 중국의 종교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와 난색을 표시하는 것이다. 대신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 소수 종족의 자치와 종족 종교의 확립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는 법제도가 아니라 종교사회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진정한 중국화는 종교 집단 스스로가 교리와 신학, 종족 정체성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과 함께 주체적으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와 종족, 정치를 각각 독립된 실체로 간주하는 발상에는 종교를 자율적이고 초월적인 영역으로 상정하는 서구 자유주의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나아가 종교중국화 기획이 종교 행위자들을 소외시킨다는 결론은 현 체제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 신자들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배제시킨다.

본 연구는 종교중국화를 일관되고 고정된 의미를 지닌 국가 주도의 정책 담론이나 제도로 환원시키는 대신 “매우 복잡하고 진행 중인 과정”(Lee and Huang, 2023: 5)으로 파악한다. 매드센(Madsen, 2021)은 종교중국화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

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하나는 권위주의적이고 세속화된 국가 권력의 비전이 위로부터 추진되는 정치적 기획으로서, 당 지도부의 담화문이나 공식 메시지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레토릭, 공식적인 당정 문건, 종교 관련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법령이나 공식 계획, 공식 정책에 주목한다.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실천되는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는 종교가 중국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특성에 적응해 온 방식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e.g. 중국 학자, 종교 지도자, 평신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매드센의 지적에 동의하며, 국가 중심적 내러티브를 넘어서 종교중국화의 실천적 차원을 논의하고자 한다. 시진핑 체제의 등장이 중국의 종교계에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발표된 정책들과 그 이면의 이념적 토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지역 종교 단체와 신자들의 관점과 실제 경험을 아래로부터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종교 행위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법령이나 정책 및 중국화 담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담론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최근에 수행된 경험 연구들에 주목한다. 차오(Cao, 2018: 156)는 현재 중국 종교 연구자들이 “다종족, 다종교, 국가 지배적 사회에서 종교와 다른 사회적 영역을 구분하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현장 중심의 종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명하는 연구자들은 억압하는 국가와 박해받는 종교라는 이분화된 프레임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국가-교회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현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Cao, 2010; Koesel, 2014; Lee and O'Brien, 2021; Liu and White, 2019; Lozada, 2002; Reny, 2018; Zhu and Chen, 2023).<sup>3</sup> 이들은 국가를 고정되고 단일한 정치적 독립체로 환원하는 대신 복수의 행위자들로 구성된 문화적 집합체로 이해하며, 다양한 기관들과 집단

<sup>3</sup> 지역적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현장 연구는 단순히 중국 외부의 관심사는 아니며, 중국 내부의 정치계와 학계에서도 갈수록 현지 조사를 동반한 경험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추세다(Cao, 2018; Huang and Hu, 2019).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정치적 안정과 체제 회복을 위해 종교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독특한 중국식 세속화 모델은 학자들로 하여금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현장에서 자료 수집을 하도록 독려한 측면이 있다. 이는 종교중국화라는 맥락에서 국가의 관료, 애국주의 종교기관의 지도자, 학계의 연구자들이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컨퍼런스나 포럼을 개최해서 종교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된 아젠다를 개발하는 현상과도 맞물린다.

및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경합하는 장으로서 정치-종교의 관계를 다룬다.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은 특히 불리한 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일반 종교 신자들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많은 신자들이 종교중국화를 단순히 하나의 억압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신학적 개념을 활용해 중국화와 관련한 맥락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와 신자들은 현 상황을 자기 성찰을 위한 기회로 삼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가 기관이 종교 조직과 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중국인이자 동시에 종교인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이중정체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본 연구는 중국 교회에 관한 최근 민족지적 연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보고서들을 통해 지배와 박해라는 정적이고 이분법적인 관점을 탈피하고, 다양한 종교 행위자들의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기술하겠다.

## II. 시진핑 시대의 종교 지형의 변화: 위로부터의 중국화

기본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를 향한 태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에 기반한다(김경아·강경구, 2017; Laliberté, 2015). 덩샤오핑 시기 공산당 지도부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급진적인 좌경 노선과 파괴적인 반종교 캠페인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한편, 종교의 장기적 존속성과 대중성을 인정하면서 종교와 사회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밝혔다. 이는 종교의 소멸을 예언한 전통적인 맑시스트 관점과는 대비되는 것이며, 이후 개혁기 중국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과 포용은 심화되었다. 장쩌민은 1993년 종교자유방침, 법치방침, 사회주의사회 적응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삼구화(三句話)를 제시함으로써 종교가 사회주의에 적응하도록 인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종교가 사회주의와 양립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했는데, 2006년 통일전선공작부는 이른바 조화사회(和諧社會) 아젠다를 강조하면서 종교

의 긍정적 기능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다. 이는 종교의 본질을 도덕성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면서, 종교가 국가와 당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한다.

물론 사회주의 정부의 종교에 대한 인정이 감시와 통제를 피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은 “보장과 통제, 자유와 구속이라는 모순적 원칙이 결합”(김경아·강경구, 2017: 10)된 특징을 지닌다. 달리 말하면, 중국 정부의 종교를 향한 모순적인 태도는 투트랙화된 종교의 정치화를 시사한다(Laliberté, 2015).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종교가 박애주의적 활동에 헌신하고 및 애국주의적 애잔대를 지지해 줄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긍정적이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이면서 강압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반동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현 체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종류의 종교 집단을 향해 발동된다.<sup>4</sup> 맑스-레닌주의와 무신론을 공식 이념으로 표방하는 중국 정부가 통제의 강화와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자연발생적인 종교 부흥을 억제하려는 동시에 체제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해 종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독특한 세속화 모델을 발전시켜 왔음을 방증한다(Ji, 2015).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계승하고 있지만, 보다 강화된 종교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시진핑은 매우 강력한 리더십의 확보와 당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권력 계승 방식에 생겨난 변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 시진핑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와 회의들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은 권위주의적 체제의 강화와 합

<sup>4</sup>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들 사이에 투트랙화된 정책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사교(邪教)로 지목되는 신흥 종교나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같은 해외에서 유입된 종교에는 억압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도교와 같은 전통 종교 혹은 불교와 같은 성공적으로 토착화된 외래 종교에는 포용적인 스탠스를 취하곤 했다. 하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투트랙화된 정책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며, 동일한 종교 집단에 대해서도 지역 정부의 상반되는 태도가 발견되기도 한다. 뒤에서 다시 기술하겠으나, 기독교의 경우 주로 억압의 대상이 된 집단은 대형 미등독교회이지만, 사회 안정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미등독교회의 활동이 묵인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다(Cao, 2010; Liu and White, 2019; Reny, 2018).

계 사회 전반의 통제가 확장되고 있다. 종교 역시 예외는 아니며, 시진핑 정부는 종교와 관련된 법제화와 규제화를 이전 정부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법제도에 기반한 통치는 종교 신앙에 대해 중립성을 보장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정치적 세속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는 당이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종교 집단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Laliberté, 2015; Yang, 2021).

이러한 변화는 종교중국화로 수렴된다. 종교중국화는 2015년 시진핑이 주재한 중앙통전공작회의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공식적인 종교 담론에 편입되었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習近平, 2015). 시진핑은 2016년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모든 종교들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 간부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사용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계도하고, 중국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촉진시키며, 종교로 하여금 사회 통합과 중국몽을 지지하는 내용의 교리를 만들도록 당부했다(習近平, 2016).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한다”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고, 2021년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는 당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종교중국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9가지 필수 사항을 발표했으며(宿党辉, 2021),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도 중국화 방향을 재차 강조하면서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을 밝혔다(習近平, 2022).

중국화라는 용어가 함의하듯이, 기본적으로 종교중국화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가치에 대한 강조와 함께 중국 특색을 갖춘 종교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해외에서 수입된 종교에 중국문화의 색채를 덧입힌다는 의미의 지역화나 토착화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문화적 동화라는 의미에서는 중국화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를테면 마테오 리치와 같은 예수회 사제는 스스로를 유교 학자로 소개하면서 유교 개념을 통해 천주교를 소개하는 등 전략적으로 중국 문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Liu, 2013).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시진핑 정권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종교중국화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문화적 동화나 통합을 넘어서서, 정부가 종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종교 업무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려는 정치적인 기획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Jing and Koesel, 2024; Madsen, 2021; Yang, 2021).

당의 권위와 역할의 강조는 일단 기존 법령의 개정으로부터 확인된다(Lavicka and Chen 2023). 시진핑 정부는 2017년 「종교사무조례」의 개정을 시작으로, 2021년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 「종교학교관리방법(宗教院校管理辦法)」, 「종교교직원관리방법(宗教教職人員管理辦法)」, 2023년 『종교활동장소관리방법(宗教活動場所管理辦法)』을 공포하는 등 기존의 종교 관련 규정을 수정, 보완했다. 개정된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가치를 실천하며, 포교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외세의 침투에 저항하는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존 규정으로부터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법률적으로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료하게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은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 통제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국가 안보와 치안을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규모 종교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 종교 집단의 활동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또 다른 특징은 온오프라인에서 종교 자료 배포에 대한 감시의 강화인데, 이는 더 넓은 차원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중국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교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중국화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종교의 안보화(securitization)이다(Jing and Koesel, 2024; Laliberté, 2015). 시진핑 정부는 종교를 신학 지식과 의례적 실천의 문제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켰으며, 대내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전방위적인 통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 출범 당시, 개혁개방 이후 당정 분리가 가져온 중국공산당의 사회정치적 위상의 저하, 특히 정치권과 관료들의 부패로 인한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 하락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감은 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불안요소였다. 이런 내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통제되지 않은 종교 부흥이 국가 안보와 치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정부, 반사회적 운동으로 발전될 여지가 보이는 종교 집단, 특히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리즘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받는 위구르 무슬림이나 티벳 불교도 등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진핑 정부는 종교가 장기적으로 사회 안

정을 저하시키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외 단체와의 연계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서구에서 유입된 기독교나 중동 문화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슬람의 경우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 및 부흥, 그리고 중국몽의 실현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종교의 안보화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부분은 ‘지역 종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스탠스이다(Chang, 2018; Vermander, 2019). 해외에서 유입된 종교나 극단주의로 발전해서 사회를 위협할 잠재력을 지닌 종교와 달리, 중국의 토착 종교,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중국화에 성공한 외래 종교는 지역 종교 혹은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sup>5</sup> 개혁개방 이후 발생한 도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의 부흥은 일정 부분 전통문화 유산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전통의 정치화 기획의 결과이며, 시진핑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역 종교를 향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특히 불교의 경우 중국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곤 한다(Yang, 2021). 시진핑은 2014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연설하면서 불교를 중국 문화 전통의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는가 하면, 중국 불교협회장인 웨칭은 베이징의 연정신학원을 방문해서 불교의 중국화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sup>6</sup>

민간신앙의 경우,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고, 더욱이 사교라는 이름의 반사회적 불법 종교의 범주에 포함되곤 했다. 장쩌민 정부에서 1990년대 말에 유행한 파룬공(法輪功) 같은 기공 운동을 사이비 종교로 규탄하고 강력하게 진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에서 민간신앙은 국가적 아젠다를 위해 포섭해야 하는 대상, 나아가 존립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격상된 지위를 얻게 된다. 시진핑은 2016년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도교와 같은 중국에서 기원한 공식 종교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sup>5</sup> 중국 공산당이 불교와 도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 종교가 이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재난 피해자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는 불교와 도교에 한정된 종교 윤리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종교로서의 불교와 도교 철학에 대한 지지를 통해 인민의 돌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체제 정당성을 확보한다(Laliberté, 2015).

<sup>6</sup> 물론 모든 불교가 지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소수 종족 문제와 관련된 티벳 불교의 경우는 강압적인 종교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미신이나 사교로 취급되었던 민간신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오랜 중국 전통의 일부로서 해외에서 중국 체제를 위협할 만한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민간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간신앙을 향한 포용적 접근은 이전 정부와 비교되며, 시진핑 집권 이후의 변화를 마오쩌둥 시기로의 회귀로 묘사하는 세간의 평가와도 대치된다. 마오 시기에는 모든 종류의 종교를 봉건사회의 잔재로 규탄하고 철저히 반종교 캠페인을 펼쳤던 반면, 시진핑 시대에 ‘중국 종교’는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국가 유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교중국화가 중국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만, 실상 그 강조점은 전통적 가치관으로의 복귀 자체보다는 전통주의를 표방하는 당의 강력한 영도에 있다(Chang, 2018; Yang, 2021). 위에서 언급한 도교와 불교와 같은 중국 지역 종교들도 중국화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과도한 상업주의에 저항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적응하라는 당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해외에서 유입된 기독교나 이슬람의 경우,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리나 전례, 표현 방식에 있어서 중국의 전통 가치와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순수하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화와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중국 특색을 지닌 종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의 정치적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주도의 종교중국화는 특정한 종교 자체를 신성시하는 기획은 아니며, 오히려 세속 국가에게 더 높은 차원의 신성한 권력을 부여한다. 신성한 국가 권력의 주된 관심은 종교에 스며들어 있는 사회적·상징적 자원의 제거가 아니라, 이것들이 국가의 성스러움을 드러내 보이도록 관리하는 데에 있다(Vermander, 2019: 4).

시진핑 체제에서 당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의 확대는 관료 조직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종교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구조를 개편했는데, 특히 국가종교사무국과 통일전선공작부의 통합이 눈에 띈다. 사실 중국에는 종교 업무 관장을 위한 3개 층위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Chang, 2018; Goossaert and Palmer, 2011). 바로 통일전선공작부와 국가종교사무국,<sup>7</sup> 그리고 5개

의 애국주의적 종교 단체들이다. 애국주의적 단체는 국가의 감독과 통제하에서 운영되는 공식 종교 기관이다. 통일전선공작부는 종교 업무를 위한 주요 방향들을 정하고 당 지도부의 종교 정책 결정을 도우며 국가와 애국주의적 종교 기관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종교사무국은 실질적인 종교 정책의 시행과 일상적인 종교 업무의 관장을 맡는다. 구자르와 팔머(Goossaert and Palmer, 2011: 319)는 이러한 국가 종교 관리 시스템을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와 종교 문화가 결합한 형태의 “종교적 단웨이(religious Danwei)”라고 명명한다. 종교적 단웨이는 관료제적 이원화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로 인해 종교 정책의 시행은 지역마다 매우 상이해진다. 이를테면, 소단위 지역 정부에서 통일전선공작부에 소속되어 있는 관료가 종교 업무나 소수민족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원론적으로 지역 관료는 중앙 정부의 지시와 정책을 따르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일전선공작부나 종교사무국이 아니라 지역 정부와 당 위원회로부터 부여된 임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지는데 그의 임명권을 지역 정부와 당 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2018년에 국가종교사무국을 통일전선공작부에 통합시키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이는 통일전선공작부의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보다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역 관료들이 중앙당의 정치적 목표를 더욱 신경 써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여건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자면 위로부터 시행되는 종교중국화는 당 권위의 강조와 함께 종교적 삶의 전반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기획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종교중국화의 핵심은 모든 종교로 하여금 현재 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그 사실성 혹은 일관성에 대한 어떠한 의심을 표현하지 않고”(Madsen, 2021: 3)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애국주의의 가치 역시 단순한 나라 사랑이 아니라 공산당 사랑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양(Yang, 2021: 16)은 종교중국화의 적합한 영어 번역어는 한화(漢化)

<sup>7</sup> 통상적으로 각 지역 정부 차원에서 종교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종교사무국으로 불린다. 각 지역의 종교사무국은 일종의 국가 부속 기관으로 기능하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를 대표하는 기관이 국가종교사무국이다.

를 의미하는 Sinicization이 아니라 정치적 길들이기를 함의하는 Chinification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징과 코젤(Jing and Koesel, 2024: 124)은 시진핑 정부가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지만, 당의 이데올로기, 당의 리더십, 당의 충성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중국화는 당화(黨化)에 가깝다고 본다.

### III. 억압과 박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아래로부터의 중국화

지금까지 국가의 주도로 추진되는 정치적 기획으로서 종교중국화를 기술했는데, 이러한 위로부터의 종교중국화 논의는 거시적·국가적·정책적 차원의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종교중국화를 단순히 세속화된 국가 권력의 정치적 비전 — 그것이 중국 사회의 통합과 체제 안정을 목적으로 하든, 혹은 대외적으로 중국 전통문화와 이념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한 자부심에 근거한 것이든 — 이 종교의 이름으로 재현된 형태로 해석하게 된다면, 종교중국화는 그 자체로 일관되고 고정된 의미를 지닌 단일한 정치적 기획으로 환원된다. 사실 위로부터 추진되는 종교중국화,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정책 실행 및 종교 경험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 정부가 반복적으로 종교중국화를 강조하면서 종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종교 사업을 관장하는 기구들이 행정적·관료제적 변화를 경험하며, 이로 인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담론은 실천적 차원에서 정책이 지역마다 상이하게 시행되는 방식들,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sup>8</sup>

본 절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중국화 양상을 기술하며, 특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와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신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내러티브에는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종교 행위자들의 실천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현재 시진핑 정부가 요구하는 중국화 의제로부터 자유로운 종교와 종교 집단은 존재

<sup>8</sup> 이는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격언을 상기시킨다.

하지 않으며, 특히 기독교는 집중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9</sup> 2000년 이후 규모에서나 영향력 측면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어 왔던 도시 지역의 몇몇 대형 미등록교회들은 삼자 시스템 등록 거부로 인해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를테면 2018~2019년 사이에 베이징의 서우왕교회(守望教會)와 시온교회(錫安教會), 청두의 추성웨교회(秋雨聖約教會) 등이 해산되었고, 추성웨교회의 왕이(王怡) 목사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sup>10</sup> 유명 미등록교회들은 시진핑 집권 이후 교회 탄압과 박해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되곤 한다.

그러나 국가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중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교계는 정부 등록교회와 미등록 가정교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며, 심지어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미등록교회 내부에서도 상이한 정치적인 입장이 관찰된다. 따라서 박해받는 유명 미등록교회의 사례에만 주목하면 중국 교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회의 대표성 문제와 더불어, 억압적인 국가와 박해받는 교회 사이의 갈등이라는 패러다임, 그리고 양자 간의 권력 불균형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중 담론 역시 중국의 지역 교회들이 처한 정치적 환경의 차이를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경험 연구들에 기대어 지역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관료들이나 일반 신자들을 포함하는 지역 종교 행위자들이 종교중국화 담론과 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자 한다. 다양한 지역 교회들이 종교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sup>9</sup> 이는 중국에 전래된 기독교의 서구적 기원 및 개혁개방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위상 때문이다. 중국 학계에는 기독교 부흥을 일종의 종교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Chang, 2018; Vermander, 2019). 종교생태계 모델에 기반을 두는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기존에는 다양한 종교들의 공존으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던 종교생태계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추진된 과도한 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 깨지게 되었고, 특히 전통 종교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생겨난 영적 공백을 기독교가 메우게 되었다. 종교생태계 이론은 서구에서 전래된 종교인 기독교의 부흥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본다. 특히 중국의 다원적이고 조화로운(多元通和) 종교 전통에 어울리지 않는 배타적 구원관을 지닌 기독교의 중국화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2009~2012년 즈음에 이론화된 종교생태론은 시진핑 집권 이후 인기를 얻게 되었고, 시진핑 정부의 중국화 담론 및 정책 기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되었다.

<sup>10</sup> 베이징의 서우왕교회와 청두의 추성웨교회에 대한 상세한 민족지적 기록은 Vala(2017)와 Johnson(2017)을 참조하라.

어떠한 전략을 모색하는지, 특히 미등록교회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도전 앞에서 어떻게 완전한 저항이나 완전한 복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기술하겠다.

## 1. 종교중국화 기획에서 지역 관료와 애국주의적 종교기관의 역할

현재 중국 내부 정황으로부터 확인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한 중앙 정부 차원의 공식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Jing and Koesel, 2024: 124). 그리고 하향식 정책 집행이나 일방적인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상황은 지역 사회의 종교 행위자들의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sup>11</sup> 일단 정책 시행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 관료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Koesel et al., 2019; Zhu and Chen, 2023). 이들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기독교 집단을 선별하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의 정책과 규정을 지역 사정에 맞추어 재맥락화한다. 일례로 주와 천(Zhu and Chen 2023)은 저장성 지역의 종교사무국 관료들의 사례를 통해 중앙 정부의 정책과 지역 레벨에서 시행되는 규제 사이에 발견되는 모호성과 모순을 기술한다. 저장성의 관료들은 병자, 이주 노동자, 주부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에 속해 있는 이들을 신자로 보유하고 있는 교회의 활동은 용인해 주는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중산층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요주의 단체로 분류한다. 물론 후자의 젊은이 교회를 향해 즉각적인 제재가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후자 유형의 교회는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종종 받게 되는데, 이때 교인들이 지역 관료들에게 순응적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강력한 탄압이 가해진다.

또한 지역 관료들은 단순히 억압과 탄압의 레토릭을 넘어서서, 덜 엄격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과 실천을 재조정하기도 한다(Lee and O'Brien, 2021). 탄압이

<sup>11</sup> 구체적 지침을 동반한 중앙 정책의 부재 및 지역 레벨에서 종교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는 관행은 시진핑 집권 이전 시기에도 관찰되는 현상이며, 이는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 온 정치종교적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리력을 동반해서 부적절한 종교 활동을 근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재조정은 목사와 신자들로 하여금 보다 바람직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중국인이라는 특정한 민족 정체성과 종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 관료들은 국가 의식을 신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중국몽을 강조하곤 하는데, 이로써 목사와 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중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조국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종교 신자들이 지닌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의 강조는 문화적 토착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른 한편 애국주의적 종교기관은 지역 관료들의 재조정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중국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中國基督教三自愛國運動委員會)와 중국기독교협회(中國基督教協會)는 당의 중국화 요구에 따라 교회 발전을 위한 5개년 사업계획(2018~2022)을 발표했고(中國基督教兩會, 2018), 이후 2023년에 새로운 5개년 계획을(2023~2027)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中國基督教兩會, 2023). 사실 종교 영역에서 5개년 사업계획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50년대에 애국주의 종교기관이 설립된 이후 당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화와 관련된 5개년 계획은 당에 의해 제시된 원칙을 따른다. 2018~2022년 계획에서는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고수하고, 우리나라 발전 제도, 경로, 이론, 문화를 인정”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으며, 2023~2027년 계획에서는 “당의 종교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 기본신앙과 핵심교의를 수호하는 동시에 교의, 규범, 관리제도, 예의, 풍습, 행동규범의 방면에서 중국 특색의 형성을 촉진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은 당 리더십을 존중하고, 종교 교리와 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이에 조화를 찾으며,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동시에 두 차례의 5개년 계획 발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서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전통적 가치를 따르는 종교적 실천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기독교 애국주의 기관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선진문화

를 배우고, 흡수하며, 나아가 중국어, 중국 예술, 중국의 방식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등록교회들은 중국의 전통 멜로디, 전통 복장, 서예, 종이 공예, 전통 건축 양식 등의 중국적인 요소를 기독교 의례와 교회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사랑과 유교의 자비(仁) 개념을 통합해서 보편 윤리의 실천에 보다 헌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신학교는 신학 지식과 사상의 중국화를 심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주의 핵심가치, 애국주의, 중국 역사, 문학, 철학, 예술 및 전통 문화 과목의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재조정하고 종교중국화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sup>12</sup>

5개년 계획의 발표 이후로 삼자 시스템에 등록된 많은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중국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테면 베이징의 교회들은 오성홍기를 게양하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교회 내에 손으로 직접 국기를 만드는 그룹을 조직하기도 한다. 국기게양과 국기 만들기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애국서적코너(愛國書角) 운영, 중국화와 관련된 사진 전시 및 설교 콘테스트 개최가 포함된다(Jing and Koesel, 2024: 126). 몇몇 기관들은 좀 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2021년 푸젠성의 애국주의 종교기관과 신학교는 통일전선공작부와 종교사무국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福建基督教兩會, 2021). 기념식에서는 삼자애국운동위원장이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중국 교회도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 이후에 ‘문예의 밤(文藝晚會)’이라는 공연 관람 순서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는 당과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을 가사로 표현한 노래들을 부르고, 당이 이끄는 혁명투쟁을 위해 헌신한 교회 신자들을 영웅화한 뮤지컬을 선보였다.

이렇게 당이 제시한 중국화 비전을 따르려는 애국주의 기관과 교회의 노력은 일종의 “공식 대본(public transcript)”을 발행하는 행위다. 발라(Vala, 2017)는 제임스 스콧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신자들이 당-국가의 정치적 어법에 부합하는 방

<sup>12</sup> 이러한 문화적 변용은 상대적으로 덜 거부감을 일으키는 반면, 중국식 사회주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버전의 성경을 만들라는 당의 요구는 보다 수용하기 힘들 수 있다(Madsen, 2021).

식으로 발화하는 법을 체화하고 공식 대본을 발행하는 한편, 당-국가는 교회 발전의 공식적인 단계를 통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종교중국화라는 맥락에서 작성되는 공식 대본은 공식 영역에서 당-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체계모니를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종교 신자에게 기대되는 바가 실현됨을 함의한다. 물론 등록 교회와 신자들의 입장에서 공식 대본의 발행은 공식적인 수준에서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는 등록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의 진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만으로는 이들이 중국화 기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마지못해 당을 지지하는 답론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교회들이 공식 대본을 발행하는 노력을 보이고 당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한에서, 중앙 정부의 중국화 기획을 유연하게 따라가도록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Jing and Koesel, 2024: 127). 애국주의 기관의 경우 중앙 정부가 그려 놓은 중국화라는 밑그림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는 스스로 그림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애국주의 기관은 권위주의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나름의 행위자성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정치 주체로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행위자성은 미등록교회에서도 발휘된다. 박해받는 교회와 신자들의 사례를 통해 미등록교회를 단일한 조직으로 환원하거나 모든 미등록교회를 외부의 원조와 구원이 필요한 희생자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이후에는 미등록교회들이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서 억압적인 정치 환경에서 어떠한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지를 기술하겠다.

## 2. 저항과 철회 사이에서: 미등록교회의 적응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교회는 애국주의 기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찾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간에 널리 알려진 대형 미등록교회들은 비교적 최근에 급성장한 신흥도시교회들로서

수백 명, 심지어 천 명이 넘어가는 회중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좀 더 지역적인 레벨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미등록교회들은 훨씬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많은 미등록교회들은 현 정치 질서와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정치적 위험성은 최소화하면서 조직의 생존성은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의 정치적 입장은 저항과 철회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O'Brien, 2023). 국가가 미등록교회에게 요구하는 주된 사항 중 하나는 공식적인 등록이지만 실제로는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공개적인 지시 불이행은 일종의 저항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등록교회들은 당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권위주의 체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 “순응적인 반항”(Reny, 2018)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태도는 당장의 제도 개혁이나 현실 조건의 개선보다는 장기적인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생존 전략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들도 있지만, 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지니는 협상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위자성이 발휘될 수 있다.

대부분의 미등록교회는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역으로 이러한 불확실성과 취약성은 지역 관료들로 하여금 미등록교회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Reny, 2018). 종교 관련 업무 기관 담당자나 공안부 소속 관료들은 언제라도 종교 단체에 개입할 수 있고, 법을 위반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 경고와 제재는 급작스럽고, 임의적이며, 불규칙하다. 따라서 미등록교회들은 언제 지역 관료의 방문을 받게 될지, 발각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그 강도가 어떠한지, 자신들의 불법 종교활동으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 수 없다. 지역 관료들이 언제라도 미등록교회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등록교회는 위협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미등록교회 스스로도 지역 관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sup>13</sup> 첫째로 미등록교회들은 이념

<sup>13</sup> 본고에서 제시하는 4가지 전략은 미등록교회에 관한 경험 연구와 중국의 신자들이 직접 제작한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다. 저장성과 허난성 지역의 특정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경우(Yang

적 차원에서 ‘정치화(攝政治)’에 반대한다(Lee and O’Brien, 2021; O’Brien, 2023). 중국 정부는 종교를 정치적인 이슈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종교의 정치화를 시도해 온 한편(Laliberté, 2015), 미등록교회의 목사들과 신자들은 종교로부터 정치적인 색채를 제거하기 위한 탈정치적 노력을 강조해 왔다. 물론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함의를 지니고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일종의 탈정치의 정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강조점은 미등록교회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치를 종교의 영역 바깥으로 밀어내고 자신들을 현실 정치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탈정치화의 핵심은 성경과 사회주의, 하나님과 당-국가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다. 일단 미등록교회 목사들은 설교의 주제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설교 시간에 직접적으로 당-국가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정치적 논평을 내거나,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의 특정 정치색이 드러나는 행위는 피한다. 대신 설교는 사랑과 자비와 같은 보편 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심지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종교 색채가 강한 주제를 다룰 때도 정치적 메시지가 개입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천국이나 부활, 사후세계 등의 주제가 설교에서 다뤄지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종교 개념들이 현재 당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정치 담론을 만들거나 조국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것으로 비추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다. 물론 이는 목사나 평신도 개개인이 현실 정치와 국가의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회 밖에서 비신자들과의 대화에서 혹은 신도들이 사적으로 교류하는 자리에서 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으나,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공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때 정치적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and Wang, 2023; Zhu and Chen, 2023)를 제외하면, 본고에서 인용되는 연구들은 중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관점 및 일화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 속에서 미등록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가명 혹은 예명 처리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 장소 역시 특정되지 않는다. 이는 미등록교회에 연루된 이들의 불법적인 신분 노출을 막고 이들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소규모 미등록교회의 탈정치화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유명 미등록교회의 활동을 과잉 정치화로 규정하면서 거리를 두는 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sup>14</sup> 사실 앞서 언급했던 신흥도시교회와 국가의 갈등은 최근 중국 교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개혁주의(改革宗)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Chow, 2018; Ma and Li, 2018).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유명 미등록교회들, 특히 추성웨교회와 같은 지역 교회는 중국의 법치주의 확립과 시민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인사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회개혁 운동에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강도 높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정부 시위를 감행하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강조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도 교회를 직접 운영하거나 교인들의 활동에 개입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교회는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이른바 “신실한 불순종(faithful disobedience)”의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Wang, 2022). 하지만 모든 미등록교회들이 이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sup>15</sup> 많은 미등록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중국 교계에 공공신학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이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인권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주장하거나 정부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등의 반정부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것은 거부한다. 심지어 일부 유명 미등록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공개적인 논평을 함으로써 미등록교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미등록교회들이 억압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동시에 정치적 의심을 차단하기

<sup>14</sup> 도세이(Doshay, 2021)는 권위주의적 정권이 특정 집단들의 활동만을 승인해 줌으로써 이들이 속해 있는 더 큰 시민사회를 보다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과정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억압이 발생했을 때 시민사회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보다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중국 교회의 상황이 여기에 부합하며, 중국 교계 내부에 박해받는 교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심지어 등록교회 목사들 중에는 정부의 강경한 정책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특정 종교의 빠른 성장세는 중국 인민이라면 누구라도 걱정할 만한 사회적 현상이기에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불가피하며 국가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교회들은 스스로가 박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sup>15</sup> 중국의 개혁주의 성향의 교회들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은 신실한 불순종의 관점 이외에도, 신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를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 정부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우에 한해 비판해야 한다는 관점,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입장들을 포함하며 따라서 일반화하기 힘들다(Baugus, 2021; Happy, 2021).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지역 관료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O'Brien, 2023; Reny, 2018; Yang and Wang, 2023). 미등록교회 목사들 중에는 지역 관료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들의 종교 활동에 대한 내부 정보부터 사교 혹은 이단으로 지목되곤 하는 외부의 신종교 단체들에 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미등록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삼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삼자운동의 지도자들이나 지역 관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미등록교회들이 “체제 합법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관료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 사회 관계망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Yang and Wang, 2023).

미등록교회의 협력적인 태도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나 자기 검열의 강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일정 부분 교회의 자율성과 재량권 확보를 가능하게 만든다(Yang and Wang, 2023; Zhu and Chen, 2023). 사실 미등록교회의 투명한 태도와 지역 당국과의 밀접한 소통은 양자 간의 암묵적인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지역 사회 안정을 최우선순위의 과제로 여기는 관료들은 지역 교회가 정치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행위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그리고 교인들은 관료들의 통제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불법적인 종교 활동이 묵인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호 신뢰에 기반해서 상당수의 미등록교회들은 반체제 성향을 지닌 종교 집단 혹은 사교나 이단적인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분시킴으로써 지역 관료들을 안심시킨다. 사실 이는 지역 관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종의 판시 형성 원리이기도 하다. 앞서 국가 레벨에서 추진되는 종교중국화로 인해 종교 사업을 관장하는 국가 기구들이 행정적·관료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용이해졌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제도적·정책적 논리는 지역 레벨에서 판시와 같은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굴절될 수 있다. 구자르와 팔머(Goossaert and Palmer, 2011: 319)가 지적하듯이 공식 정책은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판시의 문화를 통해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세속 기관만큼이나 종교 기관에 만

연”해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교회의 세 번째 적응 전략은 교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Fulton, 2018; Lee and O'Brien, 2021; Reny, 2018). 개혁개방 이후 중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00년대에 중국 교계 내부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의 메가처치(mega-church) 모델이 중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었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로의 전환 및 종교중국화의 추진과 함께 대규모 집회가 불가능해지면서 메가처치 모델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은 소형 교회 모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 많은 미등록교회들은 회중을 여러 개의 소규모의 공동체로 분리시키는 동시에 가급적 눈에 띄지 않는 집회 장소를 찾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집회 규모가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암묵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인다. 조직의 분산 이외에도 다른 교회들이나 목회자들과의 협력관계를 가시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교회 네트워크나 연합 단체의 구성을 포기하거나, 연합 기도회와 교회 컨퍼런스 등과 같은 종교 교류 행사를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 교계 내부에서 소형화나 상호 교류의 축소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소형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와 달리 신자와 목사 간의 가깝고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대형 교회의 설립이나 교회 간 협업관계의 구축은 중국과 같은 국가에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았고 외압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소규모 공동체로 전환하게 된 것은 신의 축복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교회들은 애국주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한다(Lee and Huang, 2023; Lee and O'Brien, 2021). 여기에는 중국인됨과 기독교인됨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고민, 즉 ‘중국적 기독교인(Chinese Christian)’과 ‘기독교적 중국인(Christian Chinese)’이라는 이중정체성 사이에서의 고민이 담겨 있다. 현재 많은 미등록교회들은 기존에 협업해 왔던 해외의 선교사나 목사들을 중국인 목회자와 스태프들로 대체하고 있으며, 교회 운영과 신학 교육에 필요한 인력 또한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지역 목사들이 해외 교회를 순방하지 않도록 여행을 자제시키기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적으로 해

외 단체들의 후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중국 신자들의 헌금을 통해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 기독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독자적인 교회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이러한 중국적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 있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목회적·재정적·조직적 독립성의 추구는 신중국 건설 이후 강조되어 왔던 삼자(三自) 원칙<sup>16</sup>에 근접해 있으며, 나아가 최근 해외 종교 단체와의 공조를 근절하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종교중국화 비전에 부합하는 실천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등록교회들에게 독자성의 확립은 단순히 애국주의적 행위 혹은 당에 대한 복종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독립 교회로의 전환이 일종의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미등록교회의 목사들과 신자들은 19세기에 서구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초기 선교사들부터 개혁개방 이후 대거 유입된 미국과 한국의 선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중국 기독교 발전의 역사에서 해외 선교사들이 행사한 영향력을 인정한다. 동시에 해외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생적 교회들이 발전해 온 역사에 대해, 특히 종교적 탄압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생존했던 토착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중국 교계는 서구중심적 접근방식은 수명을 다했고 이제는 “중국 교회가 진정으로 자립할 때가 되었음”(Lee and O'Brien, 2021: 910)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적 정체성의 강조는 기독교 신앙과 중국 전통문화의 결합을 긍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테면 중국의 영적 전통과 대화하면서도 세계 보편 교회와의 연결점을 고민함으로써 고대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서구 신학과는 구별되는 중국의 독특한 신학 체계를 확립하려는 지적인 시도나(Starr, 2016),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이 교육, 절약, 사회적 서열 등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자연스럽게 통합된 신자들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다(Yang, 2021).

<sup>16</sup> 삼자라는 용어는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轉)을 지칭한다. 삼자의 원리는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의 선교위원회에서 일했던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과 헨리 벤(Henry Venn)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되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비서구 지역의 기독교 성장을 위해서 토착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삼자의 원리는 참예수교회(真耶穌教會)나 워치만 니(Watchman Nee)의 추종자들 등 20세기 초반 자생적 교회 운동에서 확인되는 한편, 신중국 건설 이후에는 해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기독교를 사회주의의 통제하에 두려는 정치적 캠페인에서 사용되기도 했다(Bays, 2012).

지금까지 기술한 종교적 실천들은 미등록교회들이 점점 억압적으로 변해 가는 정치적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은 현 상황을 신적 시험이 동반된 신적 계획의 일부로 이해한다. 이러한 신학적 해석은 순전히 비관적인 현 상황 속에서 느끼는 좌절감 혹은 당의 억압적인 정책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을 정당화하는 도구적 합리화는 아니다. 오히려 이는 고통을 신앙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중국 기독교인들의 종교관을 반영한다. 사실 중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연구들이 지적하듯이(Hunter and Chan, 1993; Lian, 2010), 순교자적 고통과 희생은 중국 교회에서 종종 영적 권위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다. 개혁개방 이전의 잔혹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세속 권력의 박해를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더 큰 영적 축복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지역 공동체 내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획득하곤 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 기독교인들은 억압적인 환경이 참된 신자와 명목상의 종교인을 구분하는 시험대가 되며 진지한 신자들은 종교적 고통과 함께 성장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통의 제공자인 국가 권력의 존재를 인정하며 고통을 매개로 한 국가와 교회의 공존을 받아들인다. 이들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은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적 환경이 이들을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는 대중 담론을 도전하며, 나아가 고통을 제거하기보다는 고통을 감내하고 긍정하는 방식으로 행위자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 IV. 나가며

종교중국화로 요약되는 시진핑 정부의 공식 정책 및 이념적 성향으로부터 확인되는 것은 종교 업무에서 당의 권위의 강화 및 종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이러한 당의 영향력의 확대는 몇몇 유명 교회의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기독교 집단의 억압과 박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의 억압적인 통치와 공식적인 조치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국가와 종교 사이의 분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양자를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영역으로 환원함으로써 너무도 삭막한 권력의 역학구도”(Yuan, 2021: 199)만을 그려 내

는 데 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중국 사회의 정치적·종교적 지형의 변화 및 그 변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아래로부터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억압하는 국가와 박해받는 신자라는 정치적으로 상호적대인 두 종류의 사회적 행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형화된 내러티브를 재고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국가와 교회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영역 혹은 추상화된 관념체로 보는 대신, 지역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와 교회의 상호 작용을 기술하고자 했다. 지역 사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 정책의 시행이나 종교 행위자들의 대응 방식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교회와 미등록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은 이전보다 억압적으로 변해 가는 정치적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전적인 저항이나 철회가 아닌 현실 적응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당-국가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정치적 이슈에 무관심한 스탠스를 유지하는가 하면, 지역 관료들과 판시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교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해외 단체들과의 교섭을 중단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생존의 방식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들은 기독교가 위협적인 집단이라는 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동시에 신자들 스스로가 안도감을 느끼도록 돕는다.

국가와 종교 사이에 타협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 심지어 현재 억압적인 종교 정책의 가장 큰 희생자로 알려져 있는 이슬람과 같은 종교를 파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례로 후이 무슬림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후이족은 이슬람을 종족정체성의 범주로 인식하고 한족 중심의 중국 문화에 상대적으로 잘 통합된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Gladney, 2003). 그런데 후이 무슬림 중에는 와하비즘의 영향을 받은 이허와니(伊赫瓦尼)나 살라피 무슬림과 같이 엄격한 경전 읽기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이슬람 분파가 존재한다. 이들은 독실한 이슬람 부흥주의자로서 순수한 신앙을 내적 믿음의 문제로 환원시키며, 종교를 공적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적 영역에 제한시키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이들은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소비하는 등 한족의 문화적 요소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거나 공산당 가입과 같은 사회정치적 활동에도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Stewart, 2021). 윈난성의 후이 무슬림은 종교중국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랍 스타일의 모스크가 중국적 특색을 지닌 건물로 재건축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대가로 기존의 무허가 모스크 건물을 승인시키는 협상력을 보여 주기도 한다(Yusupov, 2024).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시진핑 집권 이후 십자가 철거, 교회 폐쇄, 교회 지도자의 투옥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 통제와 억압의 수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중국 역사 속에서 국가와 종교 사이에는 극복하기 힘든 힘의 차이가 존재해 왔으며, 현재 시진핑 체제하에서 어느 종교 집단이나 개인 신자라도 국가의 공식 정책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현대 중국 사회에 억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인권 탄압과 종교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폭력적인 조치가 동반되는 국가의 개입을 옹호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지 않다. 다만 본 연구는 국가와 교회 사이의 권력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정치에서는 “양자의 관계가 국가의 손에만 달려 있지는 않음”(Liu and White, 2019: 567)을 강조하고자 했다. 중국의 국가와 교회의 역학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보여 주듯이, 국가 권력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강압적 통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단순한 진술은 중국의 복잡한 종교 지형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Cao, 2010; Koesel, 2014; Lozada, 2002; O'Brien, 2023; Yang, 2017). 시진핑 이전 시대에도 사회주의 정부는 억압, 협력, 견제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종교 집단들을 관리하고 통제해 온 한편, 교회 신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협력, 순응, 저항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 왔다.<sup>17</sup> 국가와 교회 사이에 형성된 복잡한 관계망은 국가의 종교에 대한 인정과 통제라는 모순적 원칙의 공존으로 인해 만들어진 회색지대로 인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종교 행위자들이 회색지대 안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sup>17</sup> 최근 중국의 종교 연구자들은 지역 관료들과 신자들 사이의 점점 형성을 위한 단일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정치-종교 혹은 국가-사회와 같은 정치적으로 경직된 프레임 자체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중국의 복잡한 종교 지형 내에서 보다 덜 이분화된 권력들 간의 다이내믹을 탐구한 사례로 웰러와 우(Weller and Wu, 2021)를 참조하라.

움직였다면, 이전보다 억압적인 환경이 조성된 시진핑 체제하에서는 생존 자체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24년 6월 13일 | 심사일: 2024년 7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4년 7월 31일

## 참고문헌

- 김경아·강경구. 2017.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고찰.” 『중국학』 61, 1-19.
- 박만준. 2018/19. “시진핑정권의 종교중국화공정이 중국종교정책에서 가지는 역사적 함의.” 『중소연구』 42(4), 119-164.
- 이우선. 2020. “시진핑 시대 종교의 중국화: 맥락과 해석.” 『종교연구』 80(3), 249-274.
- Bays, Daniel. 2012. *A New History of Christianity in China*. Oxford: Wiley-Blackwell.
- Cao, Nanlai. 2010. *Constructing China's Jerusalem: Christians, Power, and Place in Contemporary Wenzhou*.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8. “The Rise of Field Studies in Religious Research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a Review* 18(1), 137-163.
- Chang, Kuei-min. 2018. “New Wine in Old Bottles: Sinicization and State Regulation in China.” *China Perspectives* 113, 37-44.
- Chow, Alexander. 2018. *Chinese Public Theology: Generational Shifts and Confucian Imagination in Chinese Christia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shay, Harris. 2021. “Solidarity or Distancing? How Official Status Influences Chinese Protestant Reactions to Repression.” *Comparative Politics* 53(4), 663-700.
- Gladney, Dru. 2003. “Islam in China: Accommodation or Separatism.” *The China Quarterly* 174, 451-467.
- Goossaert, Vincent and David Palmer. 2011. *The Religious Question in Modern China*.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Huang, Jianbo and Mengyin Hu. 2019. “Trends and Reflections: A Review of

- Empirical Studies of Christianity in Mainland China Since 2000.” *Review of Religion and Chinese Society* 6, 45-70.
- Hunter, Alan and Kim-Kwong Chan. 1993. *Protestantism in Contemporary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i, Zhe. 2015. “Secularization without Secularism: The Political-Religious Configuration of Post-1989 China.” in T. Ngo and J. Quijada, eds. *Atheist Secularism and Its Discontents: A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and Communism in Eurasia*, 92–111.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Jing, Peitong and Karrie Koesel. 2024. “Church and State in Contemporary China: Securing Christianity.” *Politics and Religion* 17(1), 107-137.
- Johnson, Ian. 2017. *The Souls of China: The Return of Religion After Mao*, New York: Pantheon Books.
- Koesel, Karrie. 2014. *Religion and Authoritarianism: Cooperation, Conflict, and the Consequ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esel, Karrie, Yizhi Hu, and Joshua Pine. 2019. “Official Protestantism in China.” *Review of Religion and Chinese Society* 6, 71-98.
- Laliberté, André. 2015. “The Politicization of Religion by the CCP: A Selective Retrieval,” *Asiatische Studien - Études Asiatiques* 69(1), 185-211.
- Lavicka, Martin and Julie Yu-Wen Chen. 2023. “New Measures for Governing Religions in Xi’s China.” *China Report* 59(3), 259-274.
- Lee, Christine and Jianbo Huang. 2023. “Making Christianity Chinese: Sinicization Outside State Narratives.” *China Perspectives* 133, 3-8.
- Lee, Sarah and Kevin O’Brien. 2021. “Adapting in Difficult Circumstances: Protestant Pastors and the Xi Jinping Effect.”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30(132), 902-914.
- Lian, Xi. 2010. *Redeemed by Fire: The Rise of Popular Christianity in Modern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u, Jifeng and Chris White. 2019. “Old Pastor and Local Bureaucrats: Recasting Church-State Relations in Contemporary China.” *Modern China* 45(5), 564-590.
- Liu, Yu. 2013. “Adapting Catholicism to Confucianism: Matteo Ricci’s *Tianzhu Shiyi*.” *The European Legacy* 19(1), 43-59

- Lozada, Eriberto. 2002. *God Aboveground: Catholic Church, Postsocialist State, and Transnational Processes in a Chinese Vill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 Li and Jin Li. 2018. *Surviving the State, Remaking the Church*. Oregon: Pickwick.
- Madsen, Richard. 2021. "Introduction." in Madsen Richard, ed. *The Sinicization of Chinese Religions from Above and Below*, 1-15. Leiden: Brill.
- O'Brien, Kevin. 2023. "Neither Withdrawal nor Resistance: Adapting to Increased Repression in China." *Modern China* 49(1), 3-25.
- Reny, Marie-Eve. 2018. "Compliant Defiance: Informality and Survival Among Protestant House Churches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7(111), 472-485.
- Starr, Chloë. 2016. *Chinese Theology: Text and Contex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ewart, Alexander. 2021. "Faith in the Future/Practices of the Past." in Madsen Richard, ed. *The Sinicization of Chinese Religions from Above and Below*, 130-147. Leiden: Brill.
- Vala, Carsten. 2017. *The Politics of Protestant Churches and the Party-State in China: God Above Party?* New York: Routledge.
- Vermander, Benoît. 2019. "Sinicizing Religions, Sinicizing Religious Studies." *Religions* 10, 137 (<https://doi.org/10.3390/rel10020137>).
- Wang, Yi. 2022. *Faithful disobedience: Writings on Church and State from a Chinese House Church Movement*. Westmont: InterVarsity Press.
- Weller, Robert and Keping Wu. 2021. "Overnight Urbanization and Changing Spirits Disturbed Ecosystems in Southern Jiangsu." *Current Anthropology* 62(5), 602-630.
- Yang, Fenggang. 2017. "From Cooperation to Resistance: Christian Responses to Intensified Suppression in China Today." *The Review of Faith & International Affairs* 15(1), 79-90.
- \_\_\_\_\_. 2021. "Sinicization or Chinification? Cultural Assimilation vs. Political Domestication of Christianity in China and Beyond." in Madsen Richard, ed. *The Sinicization of Chinese Religions from Above and Below*, 16-43. Leiden: Brill.
- Yang, Jianghua and Yujie Wang. 2023. "Legitimacy, Organisational Capacity, and

- Church Growth in Rural China: 1978-2018.” *China Perspectives* 133, 19-29.
- Yuan, Xiaobo. 2021. “Gendering Heterodoxy: The Corporeal Politics of Xiejiao in Chinese Christian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89(1), 174-203.
- Yusupov, Ruslan. 2024. “Sinicising Islam in China: The Story of a Mosque.” *Made in China Journal* (<https://madeinchinajournal.com/2024/01/18/sinicising-islam-in-china-the-story-of-a-mosque/>) (검색일: 2024. 6. 10.).
- Zhu, Yujing and Yun Chen. 2023. “Visibility in Dilemma: Institutional Work in the Regulatory Practices of Protestant Churches in Wenzhou, China.” *China Perspectives* 133, 9-18.

#### 〈1차 자료〉

- 福建基督教兩會. 2021. “百年華誕頌輝煌: 福建省基督教兩會隆重舉行慶祝中國共產黨成立100週年文藝晚會.” <http://www.fjjidujiao.com/newshow.asp?id=1571>(검색일: 2024. 6. 10.).
- 宿党辉. 2021. “堅持我國宗教中國化方向, 總書記為何如此重視?” <https://www.12371.cn/2021/12/06/ARTI1638757718495779.shtml>(검색일: 2024. 6. 10.).
- 習近平. 2015. “鞏固發展最廣泛的愛國統一戰線.”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05/20/c\\_1115351358.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05/20/c_1115351358.htm)(검색일: 2024. 6. 10.).
- \_\_\_\_\_. 2016. “全面提高新形勢下宗教工作水平.”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4/23/c\\_1118716540.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4/23/c_1118716540.htm)(검색일: 2024. 6. 10.).
- \_\_\_\_\_. 2022.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為全面建設社會主義現代化國家而團結奮鬥: 在中國共產黨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검색일: 2024. 6. 10.).
- 中國基督教兩會. 2018. “進我國基督教中國化五年工作規劃綱要(2018-2022).” <https://www.ccctspm.org/cppccinfo/10283>(검색일: 2024. 6. 10.).
- \_\_\_\_\_. 2023. “深入推進我國基督教中國化五年工作規劃綱要(2023-2027).” <https://www.ccctspm.org/cppccinfo/17230>(검색일: 2024. 6. 10.).
- Baugus, Bruce. 2021. “China’s Reforming Churches, Continued.” *Chinasource Quarterly* 23(4), <https://www.chinasource.org/resource-library/articles/chinas-reforming-churches-continued/> (검색일: 2024. 6. 10.).
- Fulton, Brent. 2018. “China’s New Approach to Religion: Implications for the

- Church.” *China Source*, <https://www.chinasource.org/resource-library/chinasource-blog-posts/chinas-new-approach-to-religion/> (검색일: 2024. 6. 10.).
- Happy. 2021. “Reformed Churches and Church/State Relationships.” *Cbinasource Quarterly* 23(4), <https://www.chinasource.org/resource-library/articles/reformed-churches-and-church-state-relationships/> (검색일: 2024. 6. 10.).
- Human Rights Watch. 2024. World Report: China, <https://www.hrw.org/world-report/2024/country-chapters/china> (검색일: 2024. 6. 10.).
- Lau, Mimi. 2019. “Inside China’s Unofficial Churches Faith Defies Persecution.”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6),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2180873/inside-chinas-unofficial-churches-faith-defies-persecution> (검색일: 2024. 6. 10.).
-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23. USCIRF Annual Report, <https://www.uscirf.gov/sites/default/files/2023-05/China.pdf> (검색일: 2024. 6. 10.).

## Abstract

## Understanding China's Religious Landscape from Below: The Sinicization of Religion and Christianity in the Xi Jinping Era

Wonji Yoo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akes a bottom-up approach to understand the changing religious landscape in contemporary China with a special focus on Christianity. Under the Xi Jinping regime, China has been enforcing the sinicization of religion, a political campaign imposing more restrictive regulations on religious practices. To understand the sinicization of religion as a complex and ongoing process rather than a state-only-driven project, this study draws attention to multiple voices in China's churches. The implementation of religious policies and the responses of religious actors in the local context are far more complex and flexible than the national-level policy discourse implies. Many pastors and believers strive to find ways to adapt to an increasingly repressive environment. They consent to the presence of the Party, build *guanxi* with local authorities, depoliticize church activities, reshape church operational structures based on small units, and cut ties with foreign organizations. These coping strategies help local believers to present themselves as non-threatening to socio-political stability and to maximize the possibility of survival. The religious and political practices at the quotidian level demonstrate that religious agency can be enacted in ways that advocate neither complete resistance nor absolute obedience to the authoritarian regime.

**Keywords** | China, Christianity, Xi Jinping, Repression, Sinicization, Religious Agency